

### 자연과학자 세이건 부부의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

# 우주질서 과학적 규명 불교 생명관과 일치한다

불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천문학 유전학 생물학 물리학 자연인류학 등의 연구성과와 이를 아우르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불교적 삶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는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학자부부 칼 세이건·앤드루안이 함께 쓴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김동광·과학

시대라는 일체의 생명관'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는 자연과학자에게 들는,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방법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 책은 생명의 궁극적인 본질을 밝혀내고, 인간을 포함한 현재 생명형태들의 미래를 탐

색과 허구를 벗겨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물들은 거의 모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를 먹고 마시며, 서로가 방출한 가스를 들이쉬고, 서로의 몸속에 살며, 서로 상대방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상호협조의 복

공동체자인 칼 세이건(미국 코넬대학 행성연구소장)과 앤드루안(작가·미국과학자협회 이사)은 TV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기획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정성운 기자



◇<잃어버린 조상의 그림자> 공동저자인 칼 세이건과 앤드루안 부부. 태양계 생성부터 현재의 생물 형태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 명사추천

분서 100선

### 한산자의 '寒山詩'

약 일년전 1994년 1월28일 소주의 한산사(寒山寺)를 방문했다. 예로부터 들던 명성에 비해 고대는 사라지고 너무나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가실 중국여행을 고대할 것은 한산사를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종루에 올라 한산사의 종을 쳐보았다. 돈을 몇 푼 내라는 바람에 극히 관광을 위해 개발된 듯한 인상을 다시금 느꼈지만, 주인이 할 수 있는 일만 고작 그 정도가 아닐까.

"한산시"를 읽기 시작한 것은 대략 30년 쯤 전이다. 대학시절 현 책방에서 우연히 구해 읽었던 것이 이 시집이다. 오래도록 이 시집을 읽고 있었는데, 다시 15년쯤 전에는 시를 공부하는 제자가 고서방에서 귀중본으로 구한 이 책을 나에게 선물하며 신선한 충격을 새롭게 느낀 것 있었다. 그 얼마전 한산사의 역자이신

한산시는 고려시대부터 한국 승려들에게 읽히기 시작하여, 현대의 시인들인 조지훈이나 정현증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미친 시집이다.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할 것인가, 필자는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읽고 읽고 책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때 한산시를 펴든다. 조지훈은 "고루한 유자의 시를 읽어 답답할 때 한산시를 읽으면 이가 시리다"고 말한 적이 있



최 동 호 (문학평론가·고려대학교수)

### 천문·유전·물리·인류학등 분석통해 밝혀

세대 옮김, 고려원미디어). 이 책이 불교인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저자들의 지적 탐구와 통찰력이 이미 2천5백년전 붓다가 설한 생명관과 너무도 닮았다는 놀라움이다.

불교의 생명관은 '자연의 모든 생물이 나의 구성요소이며, 저 닮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태양계가 생성된 이후 지구위에서 생명체가 탄생하여 현재의 고등한 형태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들은 진화론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인류가 스스로 치장한 모든 가

잡한 땅을 이루고 있다. 지구 전체에 걸쳐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의 거대한 그물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유전학의 연구성과를 인용해 모든 생물은 같은 혈통을 가진 친척임을 밝힌다.

"DNA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모든 생물의 설계도와 그 분자기구의 유사성을 생각하면, 유연성(柔軟性)은 명백하다." 실제로 사람과 침팬지의 DNA배열을 핵산염기로 비교하면, 겨우 1.7%만이 다를 뿐이다.

### 율사 석성우스님 태교시집 발간 '화제'

율사로 널리 알려진 승려시인이 태교를 주제로 한 시 72편을 한데 묶은 '태교시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있다. 71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 이후 <연꽃 한송이> <마음비워 줌> <날> 등의 시집을 상재한 석성우스님이 펴낸 다섯번째 시집 <하늘같은 날>이 화제의 책.

연이은 쾌론의 총격이 시작

(詩作)의 동기가 되었다고 밝힌 석성우스님은 "부모의 절대적인 공덕의 힘으로 지혜와 복덕을 원만히 갖춘 이들이 세상에 오는 것"이라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기가 사랑스러우면/저기 죽어가는 생명에/밝은 빛을 보시하게나 (방생2) "음악을 들으면/아름부터 열어놓고/연꽃피는 소리쯤/들어보게나"



(무제) 심성이 맑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시편마다 가득하다. (토방 펴냄, 3천5백원)

### ◇금주의 베스트볼서 10

#### 책방 역사인 집기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2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3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립
4	하산	홍 주	불 지 사
5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6	삼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불 교 각
7	알기쉬운 불교	편 성 부	불 교 방송
8	미란다왕문경	이시카미요시오	현 암 사
9	영가천후법어	석 성 우	토 방
10	42장경	라즈나쉬	성 하

구입문의:(02)737-0695

### 남현스님 '빼앗긴 조국...' 펴내

#### 일제하 인적·물적 수탈 생생하게 폭로

남현스님(한일문제연구원장·고려사주지)이 최근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한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아세아문화사)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민족에게 자행한 물자수탈과 인적수탈 전반에 걸쳐 그 실상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

국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일제에 저항한 투쟁사례도 실어 민족해방운동의 일부분을 복원하고 있다.

남현스님은 89년 '일제 36년 사연구소'를 설립해 한일관계사 자료수집과 연구에 몰두해 왔으며, 94년 2월 이 연구소를 '한일문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학술 출판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 유치원 방학교재 발행

#### 불교유아교육협회

유치원 여류방학교재 <신나는 여름>이 나왔다.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기획, 도서출판 반야샘 발행.(032-663-7779)

<신나는 여름>은 어린이들에게 가치관형성을 통해 부처님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 허식 벗어던진 깨달음 노래 읽을수록 마음이 신선해져

김달진옹을 만났고, 그분과 세속적인 인연을 맺었지만, 한산사가 나에게 주는 매력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깨달음과 비판적 시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산시는 한산지라는 당나라의 전설적인 은사가 천태산(天台山)의 나무와 바위에 써놓은 시를 국창사(國淸寺)의 스님이 편집했다고 전해지는 시집이다. 한산자의 시라고 전해지는 3백여수, 습득의 시 50여수, 통간의 시 2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은시집(三韻詩集)'이라고도 불린다.

다. 그만큼 세속의 허례허식을 벗어던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산사의 종소리는 어떠했을까. 어릴때를 마을 속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 중의 하나인 필자가 들었던 한산사의 종소리는 세속의 쟁그렁거리는 소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까. 마침 옆에서 지켜보던 설악산의 시인 이성선선생에게도 종을 쳐보라고 권했던 것 같다. 아마도 그는 깊은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필자에게는 천태산 바위굴 속에서 걸걸거리며 웃고 있을 한산자가 떠올랐다. 세속에서 깨우치지 못한 광웅 종소리란 대수로운 게 아니다.

거지이고 광인이었던 한산 때는 부름된 눈으로 대갈성 했을 것이다. 네 마음을 깨 곳이 하라!

### 3분독서

### 하이데거와 禪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 철학의 거장 하이데거의 사상

### 하이데거와 禪

(禪)<한스 페터 헬펠, 이기상·추기연 옮김, 민음사>에 주목하게 만든다. 산업적·과학적·기술적 발전이 약속하는 '무한한 진보라는 저 위대한 약속'에 동참하려고 충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판업은, 슈피겔지 기자의

### 서구사고 전환 동양철학이 큰몫

입니다. 말하자면 전환은 선불교나 다른 동양의 세계경험의 수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의 전환을 위해서는 유럽이 갖고 있는 전통들과 이것들에 대한 새로운 자기 것 化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유는 오직 동일한 유래와 규정성을 갖는 그 사유를 통해서만 변화될 뿐

입니다. 하이데거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저자 헬펠은 이성과 논리에 앞서 존재생기의 사건자체를 강조해 온 하이데거가 동양의 선과 도와 만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헬펠은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이데거가 '유럽의 전환을 새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여 주면서 그 노력의 귀결점이 선수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경험과 그리 멀지 않음을 밝혔다.

서구의 철학자가 이와같이 얘기한다면, 불교철학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불교철학의 방향을 그려볼 수는 없는 것일까.

### 새로 나온 책

▲시시상상(時時賞賞, 현문 지음)=상좌교육에 남다른 열의와 정성을 쏟았던 현문스님의 법문을 제자들이 한데 묶었다. '기도는 내일을 위한 다짐' '모든 이웃을 불보살님 대하듯' '지금 자신의 마음 지리예선' 등 3부로 나뉘 59편의 법문을 실었다. (목우, 6천원)

▲스님, 극락이 여긴데 어디로 가십니까(이정 지음)=월하 관음 서운 석주스님등 우리시대의 선지식 19명을 만나 그들이 수행에서 얻은 지혜의 세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빈곤감을 매울 수 있었다고 밝힌다. (우리출판사, 6천원)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에 마두라 지역에 햇볕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으면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견승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동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뀐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